

'얼짱 골퍼' 흥진주 프로 3년만에 정상

해외파·고참 따돌리고 KLPGA 'SK골프' 우승

받았다. 흥진주는 17일 경기 광주 뉴서울골프장(파72.6천501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SK엔크린솔루션비티이셔널(총상금 4억원) 마지막 날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첫날부터 끝까지 선두를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둔 흥진주는 챔피언 파 퍼트를 성공시킨 뒤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우승 상금은 1억원. 함께 7언더파 209타의 신지애(18·하이마트) 등 2위 그룹과 무려 7타차.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2003년 프로에 데뷔한 흥진주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달 레이크힐스클래식에서 공동 5위에 오른 뒤 이번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상금 랭킹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지애와 최나연(19·SK텔레콤) 등 6명이 후발 그룹을 형성해 추격했으나 6타차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무대 진출을 노리는 흥진주는 지난달 중순 JLPGA 엘리파인스 1차 예선전을 1위로 통과했다.

신지애와 임은아(22·김영주골프), 공은정(21·하이마트)이 나란히 합계 7언더파 209타로 공동 2위를 했고 최나연은 합계 6언더파 201타로 5위에 올랐다.

'해외파'는 6명이나 출전해 우승을 노렸으나 '국내파'가 완승을 했다. 해외파는 톱 10에 한 명도 들지 못했다. 박지은(27·나이키골프), 김미현(29·KTF)이 합계 4언더파 212타로 공동 11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챔피언의 세컨샷 17일 경기 광주 뉴서울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SK엔크린솔루션비티이셔널 마지막 날 흥진주가 4번홀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작년 신인왕 강경남 생애 첫 KPGA 우승

토마토저축은행골프 강한 비바람 4R 취소



지난 해 신인왕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PRGR)이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투어 토마토저축은행 제피로스오픈(총상금 3억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강경남은 17일 제주 제피로스골프장 마운틴코스(파72.6천483야드)에서 열린 예정이던 대회 4라운드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10언더파 206타의 성적으로 우승 상금 6천만 원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 대회 중 라운드가 취소돼 3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 것은 지난 SBS코리아투어 개막전인 롯데스카이힐오픈, SK텔레콤오픈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해 우승 없이 신인왕에 올랐던 강경남은 올해도 10번의 대회 중 5번이나 '톱10'에 들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다.

또 '유망주' 강경남의 우승으로 올 시즌 거세게 일고 있는 젊은 선수들의 상승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전에 열린 최근 2개 대회에서도 신한동해오픈 강지만(30), 삼성베네스트오픈 김경태(20) 등 젊은 선수들의 분전이 두드러졌다.

'독사' 최광수(46·동아제약)는 김창민(36)과 함께 7언더파 209타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올 시즌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용진(42·LG패션)은 6언더파 210타의 성적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해외파를 대표해 나온 위창수(34·테일러메이드)는 5오버파 221타로 공동 25위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한단계 상승 8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광역시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23, 은 27, 동 25개를 얻어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는 역도, 수영, 육상, 양궁, 론볼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 향후 상위입상에 대한 청신호를 켜다.

남동훈(시각 1급)은 역도에서 4관왕, 수영 최중선(지체 2급)과 역도 최근진(지체 1급)이 각각 3관왕을 기록하며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탤다. 또 노승현(청각 언어 1급), 신석섭(지체 3급)은 수영과 론볼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오는 2008년 장애인전국체육제를 치르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순위결정전 첫승 여자농구 세계선수권

한국여자농구대표팀이 2006 세계선수권대회 순위결정전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누웠다.

1라운드에서 3패를 당해 순위결정전으로 밀린 한국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브라질 상파울루의 이바라 푸에라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에서 김은혜(17점)와 김계림(16점)의 활약으로 세네갈을 75-69로 물리쳤다. 한국은 18일 새벽 나이저리아를 71-59로 꺾은 대만과 마지막 경기인 13-14위 결정전을 치른다.

최용수 K-1 데뷔전 KO승

세계권투협회(WBA) 전 슈퍼페더급 챔피언 최용수(34)가 입식타격 대회인 K-1 데뷔전에서 화끈한 KO승을 거뒀다.

최용수는 16일 오후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K-1 파이팅네트워크 칸 서울대회' 번외경기인 슈퍼파이트에서 녹치지 않은 펀치를 과시하며 스웨덴 무에타이 챔피언 드리트 라마(23)에게 1회 42초 만에 KO로 이겼다.

지난 2월 K-1 진출을 선언한 최용수는 이로써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전 세계 북상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살렸다.



18일(월) ▲메이저리그(보스턴-뉴욕Y)(08 : 55·Xports)

▲금산 장사씨름대회(14 : 10·KBS1)

▲일본 프로야구(히로시마-요미우리)(17 : 45·Xports)

▲KOV0컵 양산 프로배구(흥국생명-도

로공사)(14 : 00·KBS SKY Sports), <삼성

캐피탈-한국전력>(16 : 00·KBS SKY Sports)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공동 24위

위성미 또 꼴찌 "남자대회 포기 안해"

PGA투어 84럼버클래식 3R

하웰 3세·커티스 공동 선두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4럼버클래식 3라운드에서 공동 24위까지 도약했다.

최경주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파밍턴의 네머클린 우들랜드골프장(파72·7천516야드)에서 열린 대회 셋째날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5언더파 211타를 달렸다.

첫날 퍼트 감각이 나빠 2오버파 74타로 공동 84위까지 처지면서 컷오프 위기에 몰렸던 최경주는 2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는데 이어 이날 3타를 추가로 줄여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시즌 첫승을 노리는 찰스 하웰 3세와 2승을 잡으려는 벤 커티스(이상 미국)가 나란히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공동 선두를 이뤘다.

비제이 싱(피지)은 이날 4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210타로 공동 19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주 연속 PGA 컷오프

"점점 발전하고 있다"

2주 연속 남자대회에 나서 모두 꼴찌로 컷오프 당한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앞으로도 계속 남자들과 겨뤄보겠다고 말했다.

1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파밍턴의 네머클린 우들랜드골프장(파72·7천51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

어 84럼버클래식 이틀째 2라운드에서 9오버파 81타를 쳐 중간합계 14오버파 158타로 134위로 컷오프된 위성미는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다. 퍼팅을 더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 대회에 계속 나갈 것"이나 "진짜는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최종 목표는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고 남자들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내 점수가 물론 좋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주보다 이번 대회가 훨씬 좋아졌다고 느낀다"면서 "비록 점수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나 스스로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스코트 버플랑크는 당분간 미셀 위는 여자대회에 전념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버플랑크는 "미셀은 골프 천재다. 그러나 그 나이에 남자권 여자권 이런 큰 무대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내가 만일 조언자라면 먼저 가서 한 4년 정도 여자를 제압하고 그 이후에 20-21세가 되었을 때 원한다면 다시 도전하라"고 말해주었다"고 충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셀 위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남자대회와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 빅혼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할 예정이다.

네 바퀴로 20억 번 어느 회사원 이야기

4인 1차량... 자동차... 보험... 060-700-3658

TV홈쇼핑 고객평가 최우수제품!

유선 제트그립 트레킹화 1이 파격할인대잔치!!

39,800원 (정가) 29,800원 (할인가) 24,800원 (최종가)

구입문의 080-225-4040